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류현진이 15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 7회 맷 애덤스를 삼진으로 잡아낸 뒤 주먹을 움켜 쥐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박찬호도 못한 대기록 썼다

LA 다저스 류현진 7이닝 무실점 · 한국인 메이저리거 첫 PS 선발승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6·LA 다저스)이 한국인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3차전에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다저스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류현진은 세인트루이스 원정으로 치른 챔피언십시리즈 1·2차전에서 팀이 모두 패한 터라 승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마운드에 올랐지만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1회 류현진은 카를로스 벨트란을 볼넷으로 내보낸 후 맷 할리데이와 야디에르 몰리나를 각각 우익수 뜬공, 삼진으로 잡아내고 이닝을 마쳤다.

벨트란에게 볼넷을 내준 뒤 4회까지 삼진 3개를 솎아내며 11타자를 연속 범타로 요리한 그는 2-0으로 앞선 5회 선두 데이비드 프리즈에게 첫 안타를 맞았다.

이후 맷 애덤스에게 날카로운 우전 안타를 내주고 무사 1·2루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류현진은 상대 주루 플레이 실수 덕에 더블 아웃을 낚아 위기에서 벗어났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갔다.

8회 마운드에 올라온 브라이언 윌슨과 9회 등판한 마무리 켄리 얀선이 무실점으로 3-0 영봉승을 지켜 류현진은 한국인 빅리거로는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승리와 선발승을 수확했다.

◆ 2연패 탈락 위기 팀 구해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의 NLCS 4차전은 16일 오전 9시에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정0미 기자 yuw@

이통사도 "보조금은 공멸의 길"

성장한계 도달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우려 목소리 확산

"그럴 돈으로 통신요금 내리고 미래산업 투자해야"

국회 '보조금 금지법' 안내제정 출고가 인하 움직임

"최근 들어 이동통신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이 심각할 정도로 과도해지고 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해외에서는 저렴하게 판매되는 스마트폰이 국내에서는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국내 소비자가 봉인가." -강동원 무소속 의원

"이동통신 사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매년 수조원대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다." S 이동통신사 임원

스마트 시대의 총아인 '스마트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보조금, 높은 출고가격 등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매 시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는 여러 관행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가장 먼저 비판의 칼을 들이댄 곳은 정치권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미 정부와 함께 일명 '보조금 금지법'으로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 휴대이지에 휴대전화 출고가, 보조금, 실제 판매가를 공지하고,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단말기가 아닌 유심칩 구매 고객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중점 과제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과도한 단말기보조금으로 인해 통신요금 인하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167억1000만원"이라며 특히 "올해 이들의 과징금은 722억7000만원으로, 2010년 이후 과징금 총 합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눈에 띌라 엉금엉금 '국감장 진풍경'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 직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15일 국감 증인 21명이 참석해 혼잡한 정무위 회의실에서 국감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국무위원 자리 뒤쪽을 엎드려 기어가고 있다. /뉴시스

업계에서도 과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성장 한계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수조원의 보조금을 남발하는 것이 회사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거처럼 수조원의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런 비용을 통신요금 인하와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2630만대로 지난해 3070만 대보다 1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비싼 스마트폰 출고 가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박남익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따고들었다.

강 의원은 이날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기초 단계부터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의 근거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는 106만7000원인데 해외에서는 70만~90만원에 판매된다"며 "미국의 경우 29만원 정도가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보조금 금지법'을 놓고 삼성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정의대와 삼성 간 힘겨루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태균기자 ksut@metroseoul.co.kr

일년 중 가장 힘겨운 날의 표정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행정부처 장관 등 공무원이 15일 국감 이틀째 감사를 받으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뉴시스

화장품 넘버원의 '추한 갑질'

기자 수첩

박지원 <생활경제부 기자>

"이 XX야! 니 잘한 게 뭐 있노? 1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마 그만두자 사장님 철수동이요? 능력이 안 되면 나가야지."

아모레퍼시픽의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게 대리점 운영 포기를 강요하는 폭언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막말 사건에 이어 화장품 업계에서도 '갑의 횡포'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2007년 아모레퍼시픽 부산지역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실적 부진을 책임지고 영업권을 포기하길 강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아모레퍼시픽은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해당 사안은 수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갑을 논란'은 올 상반기 뜨거운 화두였던 만큼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들이 저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모습이 만연하다. 기업들은 허울 좋은 상생안을 발표하기보다 '갑'과 '을'을 구분 짓는 의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역지사지 정신이 갑을 논란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다.

국방부 직원도 정치댓글

군 당국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지난해 총선·대선 때 글작성·리트윗 확인"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국회는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국방위=국방부 직할 부대인 군사이버사령부는 이날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9년 북한의 '7·7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됐지만 국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감은 "보고 내용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 18대 대선 때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기간에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4~5일 혹은 일주일에 1건 정도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판 홀로 증인선서 거부 김용판(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권은희(오른쪽)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등 다른 증인과 달리 선서 거부를 한 채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효성, LG의 위장 계열사 신고 누락을 경고 처분해 '재벌 봐주기' 행태를 보였다"며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일정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접점을 찾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통일부 국감에선 이산가족 상봉 연기와 북한의 대남 비난 등으로 냉기류에 휩싸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탈북 주민 출신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 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이는 북한의 목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북한의 의도적 행위에 이용당한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취재진이 15일 서울 성북동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그룹 계열사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15일 사기성 기업어음(CP)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동양,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재무 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다른 임직원들의 자택도 포함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감사원 "4대강→대운하, MB도 일부 책임"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계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환기자

입영 전 기술훈련 이수→해당 분야 병역 이행→전역 후 취업 연계

'맞춤 특기병' 1000명 선발

병무청이 저학력·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특기병 1000명을 시범 선발한다.

병무청은 15일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한 업무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입영 전 기술 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 기술병으로 복무한 다음 전역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특기병 제도는 저학력·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저학력·저소득층의 입영 대상자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분야의 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맞춤형 특기병으로 전역하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에 1000명을 시범 선발하고 나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맞춤형 특기병은 원하는 시기와 분야에 입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는 숙련된 기술 분야로 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 제조업 직종과 관련된 군 기술병을 육군 기준으로 약 4만여 명 운영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특기병은 현재 운영 중인 군 기술병을 확대한 형태로 중소기업 현장기능 인력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1000여 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2017년까지 1500명을 추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유리기자 grace@metroseoul.co.kr

위안부 할머니 만난 여성부 장관 조윤선(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우리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5만5000원에 서울 '헬기 투어'

한강·여의도·강남 일대 관광상품 오늘부터 운항

한강과 여의도, 강남 일대를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등장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잠실 선착장 옆 잠실 헬기장을 거점으로 잠실, 여의도, 광나루, 무역센터 등 4개 코스를 운항하는 헬리콥터 투어 상품 '블루에어'를 16일부터 운영한다.

잠실 코스(비행 시간 5분) 이용료는 2명 탑승 시 1인당 7만원, 3명일 경우 1인당 5만5000원이다.

이 밖에도 1인당 이용료는 여의도 코스(15분) 20만~15만원, 광나루 코스(10분) 14만~10만원, 무역센터 코스(7분) 10만~7만원 등이 책정됐다.

운항 헬리콥터는 미국 로빈슨사에서 2010년 제작한 R 44 (4인용) 기종이다. 블루에어는 일단 헬리콥터 1대로 상품을 운영하고 조만간 1대를 더 들여올 예정이다. /정윤나기자

설악산에 첫눈 … 서울 오늘 8도 '쌀쌀' 서울 도심을 찾은 한 모녀가 15일 갑자기 찾아온 추위를 피하기 위해 담요 한 장을 나눠 두르고 거리를 걷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설악산에는 올가을 들어 첫 진눈깨비가 내렸으며 밤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1~3cm 가량 쌓일 것으로 관측됐다. 수요일인 16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쌀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인근 농산물·식품 200t 국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근처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200t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청주와 수산물 가공품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458건, 200t 수입됐다.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은 ▲수산물 가공품 156건 10만3058kg ▲청주 126건 2만3456kg ▲캔디(사탕)류 78건 1만9761kg ▲혼합제제 56건 4만5702kg ▲드레싱 9건 6만784kg ▲곡류 가공품 9건 2250kg ▲양념 젓갈 7건 2808kg ▲유당면류 4건 264kg ▲빙과류 3건 162kg 등이다.

또 지난 9월 6일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의 8개 현으로부터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5755건 891만t이다.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 방사성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같은 기타 핵종 검사 결과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kg당 0.5베크렐 미만으로 미량인 경우 통관이 된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지적했다. /김형석기자

원산지·유통과정 추적 가능한 수산물 1%도 안돼

정부가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했지만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알 수 있는 수산물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은 수산물 이력제 참여 업체가 전체 업체 대비 7.2%에 불과해 이력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0.43%에 그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로 인해 커져가는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논란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석기자

'생활문화지수' 종로구 전국 1위

최하위는 대구 달성군

전국 시·군·구의 생활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서울 종로구가 1위, 대구 달성군이 꼴찌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230개 시·군·구의 도서관, 영화관, 예술단체 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가 종합 지수 48.36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하위인 대구 달성군(1.37)의 3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지역에서도 중랑구, 송파구, 강동구의 경우 문화시설 규모는 크고 수도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 때문에 생활문화지수 면에서는 하위권에 포함됐다.

유 의원은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진기자 rnd@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마리 앙투아네트 참수형

1793년 10월 16일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기요틴으로 처형됐다.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막내딸로 태어난 앙투아네트는 14세 때 프랑스 루이 16세와 정략 결혼, 남편이 왕위에 오르자 궁중의 [illegible] 민중의 고통엔 무관심한 상태로 사치와 방탕을 일삼아 국민의 분노를 샀다. 프랑스 대혁명을 부정하고 적국 오스트리아와 공모한 혐의로 루이 16세가 처형된 지 9개월 만에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참수되고 말았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라"는 말은 그녀가 했던 말이 아닌데 잘못 전해진 것이다.

화학기스 대비 훈련 소방대원들이 15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창의관에서 열린 '2013년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에서 화학가스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리콜 안받고 65만대 질주

2003년부터 10년 넘게 시정조치 안 받아…"제조업체에 페널티 줘야"

주행 중 시동 꺼짐 차체 균열 등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 중 65만 대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 일까지 제작 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은 945개 차종 424만3684대로 이 중 15.4%인 65만4015대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15만9206대(25.1%), 2004년 16만2534대(11.9%), 2005년 14만2207대(16.6%), 2006년 1만8499대(12.9%), 2007년 1861대(3.3%), 2008년 6310대(6.0%), 2009년 1만4603대(9.2%), 2010년 1만4476대(5.3%), 2011년 2만5000대(9.3%), 2012년 5만4876대(26.6%), 올해 6월 일까지 5만4445대(31.3%) 등이다

이처럼 10년 이상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정조치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시정조치 종료 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시정조치를 안 받을 경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폐차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현 구조를 수정해 시정조치 종료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훈기자 mk@metroseoul.co.kr

학자금 대출 3~6개월 연체자 1만7000여명 '구제'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가 신용유의자로 빠지기 전에 분할 상환, 손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장학재단은 15일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반학자금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체가 6개월 이상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이후에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중인 1만7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1599-2230

/김승준기자

마포구, 실버시터 수강생 모집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는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건강관리사 '실버시터' 양성과정 참가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한 교육과정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마포구 및 인근에 거주하는 만 45~59세로 교육 후 실버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력 단절자는 우대한다 총 25명 모집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문의 070)7730-0771

특전사 수중 쓰레기 수거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15일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동대교~미사대교 일대 한강 유역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마친 뒤 보트로 수거한 쓰레기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내 운전경력이 몇년인데…

교통 사망사고 60% 10년 이상 경력자가 저질러

교통사고 사망자 60%는 10년 이상 경력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새누리당) 의원은 2010~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1만6126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62.1%인 1만18명은 운전 경력 10년 이상의 운전자가 낸 사고로 희생됐다고 15일 밝혔다

경력 5년 미만 운전자와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자는 각각 17.2%(2772명)와 16.4%(2648명)였다 나머지 4.3%(683명)는 무면허 운전자 등 기타로 분류됐다

가해 운전자 나이로 보면 40대에 의한 사고의 사망자가 24.1%(3893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6%(3317명)로 뒤를 이었다

13세 미만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3년간 800건이나 일어나 3명이 죽고 86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리기자

고려대 수업 일반인에 개방

고려대가 학생과 일반인이 정규 수업을 함께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려대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세계화의 이해, 근세시가론 등 13개 전공·교양 강의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디스커버 KU'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규 과정 과목 외에도 고대 교수가 진행하는 특별강연과 북토크 행사도 공개된다

강의를 수강하려는 일반인은 16일부터 고려대 교수학습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중·고등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

우리가족 효 글짓기·수기 공모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다음달 1일까지 '우리 가족 효 이야기'를 공모한다

10월 효의 달을 맞아 효를 주제로 글짓기 수기 및 신문 만들기 2개 분야다 응모 제한은 없으나 신문 만들기는 초등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 결과는 다음달 8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문의 02)2600-6728

다음달까지 성북구 마을주간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10일 시작해 다음달 8일까지 '제1회 마을주간 행사'를 진행 중이다

19일 메주 만들기·소판세끼줄 잇기 등이 열리며 31일에는 정릉동 빈민교회에서 반종교연합합창단 7개 단체가 참여하는 '정릉골 사랑나눔 합창제'가 펼쳐진다 다음달 8일에는 길음뉴타운 분수광장에서 '힐링장터'가 열린다

수자원공사 장학금 1억 기탁

15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완규)는 14일 대전 본사에서 임직원 조성 장학금 1억원 기탁식을 열었다

이 장학금은 노사 공동 임직원 급여 1% 나눔 운동으로 조성됐다 장학재단은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우수 대학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ASK innovation
WORLD ENERGY CONGRESS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다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OIL
그린올 개발 중
세계를 우리의 자원 영토로 만드는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의 미래를 바꾸는 전기차 배터리
첨단 기술의 진화를 이끄는 정보전자 소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신재생 에너지

운전면허 안 따는 美 젊은이들

고교생 소지율 12%P ↓ 어려워진 가정형편 탓

최근 미국에서 '무면허 족'은 이가 늘고 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차량 구입을 미루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히치하이킹'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USA투데이 등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를 인용, 고교 재학 중 운전면허를 따는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CDC가 미국 내 130개 고교 졸업반 학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 소지율은 2012년 현재 73%로 나타났다. 1996년 고교 졸업반 학생의 운전면허 소지율인 85%에서 무려 12%나 떨어진 것.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으로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자 학생들이 차량 구입을 뒤로 미루면서 면허를 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차를 사지 않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구들의 차를 얻어 타는 'SNS 히치하이커'도 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시간대가 자동차 면허가 없는 39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무면허' 이유를 조사한 결과, 10대 청소년의 40.4%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선미기자

'셧다운' 2주 만에 끝나나

미 상원, 예산안·부채 한도 증액안 합의 눈앞 ·디폴트 면할 듯

미국 상원 여야 지도부가 14일(현지시간)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증액안에 거의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협상은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회동을 마친 양측 대표는 오후에 열린 상원 전체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리드 대표는 "우리는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주 안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 역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리드 대표의 낙관론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유 찾은 오바마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빈민 구호단체를 방문, 자원봉사자들과 음식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국가채무 한도 상한이 17일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 정가도 빈 색했다.

전문가들은 합의안이 마감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방편이지만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예산을 현 수준에서 책정해 셧다운 사태를 끝내고, 채무 상한도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리드 대표와 매코널 대표가 합의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예산안과 부채 상한 증액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회동을 연기했다. 양당 지도부가 상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쪽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백악관에서 회동하기 전까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이 당파적인 입장에 치우치면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할 수 있다"며 "공화당만 협조하면 오늘이라도 국가 위기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악귀 쫓는 돌팔매질 행렬 15일(현지시간) 이슬람 최대 연중 행사인 성지순례 '하지'에 참가한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인근에서 '자마랏' 의식에 참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자마랏은 악귀 등을 쫓기 위해 기둥에 돌을 던지는 의식이다. /AFP 연합뉴스

북미 직장인 28% "일 때문에 점심 거른다"

미국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력 컨설팅 업체 라이트매니지먼트가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점심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9%는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해 밖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점심을 간단하게 먹는다고 말했다.

점심 시간에 회사가 아닌 식당 등에서 제대로 점심을 챙겨 먹는 직장인은 19%에 불과했다.

라이트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의 직장인들이 밀린 업무 등으로 밖에서 제대로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점심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2040.98	(+20.19)
코스닥	533.12	(+1.48)
금리(국고3년)	2.88	(변동 없음)
환율(원/달러)	1054.50	(-7.50)

뉴스 & 뉴스

스틱 살까 핸디 살까 고민 끝
일렉트로룩스 코리아는 15일 서울 용산역 아이파크 몰 광장에서 스틱 청소기와 핸디 청소기 2가지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청소기 '에르고라피도'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작년 기초생활급여 7조 6년새 40%늘어난 규모

● 15일 기획재정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은 2006년 5조1104억원에서 2012년 7조1449억원으로 39.8%(2조345억원) 늘었다. 항목별로는 주거급여가 118.9%(3074억원)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의료급여도 49.6%(1조3191억원) 늘어났다. /김현정기자

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이달말까지 18만명 전망

●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모두 19만2000명이 행복기금 채무 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6만 명이 채무 조정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모두 21만 명이 신청해 18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예상했다. /김민지기자

법인카드 거래내역 정보 관리자 한명에게만 제공

●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KB국민·삼성카드 등 카드사에 무기명 법인카드의 거래 정보는 사전 등록된 해당 법인의 카드 관리자에게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해당 카드 이용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도기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회장 겸 발행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758-2100
독자센터 02)721-9785
2002년 5월 31일 창간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할인율 뻥튀기' 소셜커머스 4사 과징금

할인율을 '뻥튀기'한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낮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쿠팡·티몬·위메프·그루폰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제한된 시간에 공동 구매로 파격 할인 판매를 하는 전자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할인율이 소비자 구매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보니 교묘한 방법으로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우선 상품명과 가격 정보만을 간략히 표시한 첫 화면에 사실과는 다른 거짓된 정보를 올려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일례로 결합 상품 일부에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내걸면서 마치 그 결합 상품 가격인 것처럼 거짓 가격 표시를 하는 것이다. 적발된 경우는 쿠팡 44건, 티몬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 등 총 123건이었다. /이성춘기자 zen@

팍팍한 살림에 보험해지 급증

지난해 손보사 기준 339만건 · 일년새 40% 늘어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면서 살림이 팍팍해진 가계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보험 상품의 중도 해지가 크게 늘고, 경제활동이 한창인 직장인 남성들까지 '알뜰족'으로 변신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중도 해지 건수는 339만 건으로 2011년 241만 건에 비해 40.6% 증가했다.

2012년 손해보험 중도 해지 액수는 1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9% 늘었다.

2011년만 해도 중도 해지 액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2.4%, 3.5% 증가에 그쳤으나 2012년 들어 증가폭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생보사 상품해지도 14% 늘어

생명보험 역시 손보사만큼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중도 해지가 상당히 늘었다.

지난해 생보사의 중도 해약 건수는 455만 건, 금액은 13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9%, 14.5% 증가했다.

가계가 쪼들릴 때 가장 먼저 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계약 해지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가계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기준 의원은 "이는 국민들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의 칼바람에 직장인 남성들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챙기려는 알뜰 소비로 돌아섰다. 연말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청장년 남성의 비중이 늘었다.

이날 KB국민카드가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의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비중이 57.7%로 여성 42.3%보다 15.4%포인트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30대 남성(17.2%), 40대 남성(15.3%), 40대 여성(11.1%), 30대 여성(10.7%) 등의 순이었다.

체크카드를 주로 쓰는 곳도 대형마트·편의점·주유소·통신 등 필수 소비인 생활 밀착형 분야(55.5%)에 집중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카드 활용을 계획적으로 하려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jkim@metroseoul.co.kr

코스피 연중 최고점 터치 15일 코스피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로 급등해 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19포인트(1.00%) 오른 2040.98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대형보험사 퇴직연금시장 독식

점유율 빈익빈 부익부 · 일부 중소형사 사업 취소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대형사에 집중되면서 중소형사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올해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퇴직연금 사업 인가 취소를 신청하고, 계약 이전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건의 경우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도 현재 신규 계약은 받지 않고,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을 접었다. 퇴직연금 시장이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고착화하고 있어 더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기업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려도 영업력을 갖춘 대형 보험사나 은행과 경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소형 보험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발을 빼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데다 정책 변화에 따라 전산 개발 등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 보험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모집 자격을 취득한 설계사들에게 연말까지 1인당 1건의 계약을 유지하도록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금융당국에 신탁업 진출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신청한 후 진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기자 minji@

2억 미만 전세 비중 5년사이 절반 줄어

서울지역 전셋집 중 2억원 미만 전세 가구 비중이 5년 새 절반 이상 줄었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2주차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총 118만3738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금액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세가 2억원 미만이 30.53%였다. 지난 2008년보다 31.62%가 줄어 5년 새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1억원대 전셋집이 줄었지만 그중에서도 송파구가 가장 많이 줄었다. 2만8221가구에서 5246가구로 2만2975가구가 줄었고, 성북구가 3만5245가구에서 1만234가구로 2만2897가구, 영등포구가 3만1192가구에서 1만333가구로 2만859가구가 감소했다.

반면 전셋값이 2억원 이상인 가구는 5년 전보다 늘었다. 2008년 전세가 2억원대 가구 수는 28만3397가구로 25.42%를 차지했다. 현재는 43만8458가구로 전체 가구의 37.04%다.

부동산써브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매매 시장 침체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뉴스 & 뉴스

'MB시절' 10대 재벌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10조

●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10대 재벌 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013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 1조8745억원, 2009년 1조8648억원, 2010년 1조6632억원으로 3년간 줄다가 2011년 2조8658억원, 지난해 2조329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재윤기자

대기업 광고 계열사 독점

● 광고대행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7곳이 그룹 전체 광고 물량(5대 매체·취급액 기준) 중 86%를 계열 광고사에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완종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광고협회 현황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현대차·LG·롯데·SK·한화·두산 등 7개 대기업이 계열 대행사에 몰아준 광고 물량은 총 2조794억원으로 전체 2조4184억원의 86%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은 전체 광고 물량 7420억원 중 7332억원(98.8%)을 계열사인 제일기획에 위탁했고, 현대차는 총 3782억원 중 2991억원(79.1%)을 계열사인 이노션 월드와이드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윤기자

NHN엔터 '토스트' 출시

● NHN엔터테인먼트가 새 브랜드 '토스트(TOAST)'를 15일 정식 선보였다.

토스트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NHN엔터테인먼트의 새 브랜드로서 '갓 구운 빵처럼 매일 만나도 즐거운 것'을 상징한다. 게임이 지향(TOward)하는 예술(Art),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을 의미하기도 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자로 '포코팡 포 카카오'와 '탭나인 포 카카오'의 토스트 브랜드 전환을 완료했다.

/장윤희기자

다음 '지방발령=좌천' 공식 깼다

제주 본사 '스페이스닷원' 직원들 꿈같은 일상
올레길 통근·주말엔 한라산·자녀는 국제학교

대다수 기업에서는 지방 발령이 '좌천'으로 통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로또 당첨'에 버금가는 행운으로 여겨진다.

포털 다음의 이야기다. 다음은 서울 한남동 지사에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본사인 제주 영평동 '스페이스닷원'(사진)으로 출근하길 원한다. 문제는 이곳의 적정 수용 인원이 350명이라는 점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다음 직원들이 '탈서울'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힐링 열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의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걸리는 등 '힐링'은 고사하고 건강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 본사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회사 차원에서 본사 이직자에게 매달 정착 비용을 지원해 회사 부근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제주의 자랑으로 떠오른 올레길을 이용해 자전거로 출근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낚시나 등산, 보트 타기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인 제주'붐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과 견줄 수 있는 스페이스닷원의 뛰어난 시설도 한몫하고 있다.

이곳에는 1층 로비에 정원이 있을 뿐 아니라 곳곳에 텃밭을 조성했다. 갤러리, 도서관, 멀티미디어룸, 당구·탁구장 등 '일만 하게 하는' 한남동 오피스와 달리 일도 하는 자연과 휴머니즘이 공존하는

사옥이다.

자녀가 있는 직원이라면 제주는 최적의 터다. 조기 유학의 실속적인 대안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외 유학 수요 흡수, 외화 유출 방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 프로젝트로 시행 4년 만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초·중·고교 가리지 않고 열린 교육과 전관 학습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교육방법 실시해 전국의 학부모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이처럼 제주 본사 이전 신청이 급증하자 다음은 스페이스닷원 옆 부지에 두 번째 사옥인 '스페이스닷투'를 짓고 있다. 내년 5월께 완공될 예정인 이곳에는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출장이 잦은 직원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이 더해진다.

다음 관계자는 "제주가 가진 장점이 많아 '지방 발령'이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젊은 직원의 경우 섬 특유의 답답함 등을 호소하며 복귀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야마하 디지털 피아노 특가 행사 15일 야마하뮤직코리아가 경기도 한 롯데백화점 본점 7층 자사 매장에서 다양한 피아노를 특별가에 판매하는 소비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 야마하는 최근 출시한 디지털 피아노 'YDP-142'와 베스트셀러 디지털 피아노 'YDP-S31'을 각각 110만원과 140만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마돈나 비데'가 뭐길래

조선미기자의 글로벌 이코노미

日 토토사의 스마트 변기 리모컨으로 뚜껑 여닫고 온도조절장치 원격 제어 화장실업계의 애플 등극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스르르 올라가는 변기 뚜껑, 화장한 봄 날씨를 연상시키는 따뜻한 바람과 물줄기….

10일 미국 경제매체 CNN머니에 따르면 환상적인 '뒤처리'를 자랑하는 '스마트 비데'가 최근 일본과 북미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스마트 비데 인기몰이의 선두주자는 일본 비데 및 욕실용품 제조기업 토토. 무선 리모컨으로 변기 뚜껑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변기의 온도 조절 장치도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다. 쾌적한 화장실 분위기를 위해 항균 및 악취 제거 기능도 갖췄다. 가격은 종류에 따라 650~2000달러(약 70만~210만원)다.

일본 유학생 김모씨는 "청결과 위생 문제에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일본인은 화장실과 욕실에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말했다.

일본인 수의사 가예 마키구찌(41)는 "토토 비데는 일본에서 매우 인기 있는 제품"이라면서 "특히 팝스타 마돈나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비데를 사용해 보고는 홀딱 반해 미국으로 돌아갈 때 구입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말했다.

토토 비데는 미국에서도 '마돈나 비데'로 알려지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에서 비데는 과거 노인이나 환자가 사용하는 기계쯤으로 여겨졌지만 첨단 장비로 무장한 스마트 비데가 등장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토토사 관계자는 "기능과 디자인 모두 훌륭한 스마트 비데는 화장실 변기 업계의 '애플 컴퓨터'"라며 "일본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에서 매년 스마트 비데 매출이 19%씩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미 시장에서 스마트 비데가 새로운 '먹잇감'으로 떠오르면서 유럽 업체들도 속속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고급 비데 시스템에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변기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에 터치스크린을 장착해 눈길을 끌었다.

/csmm@

의료통역사 자격시험 대비 특강

한국의료관광전문가교육원이 의료통역사 자격시험 대비 특강을 마련했다.

1차 필기 대비 특강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다음달 2일 개강한다. 2차 실기 대비 특강은 2개월 과정으로 내년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www.medatour.or.kr)나 전화(02-6273-8594)로 할 수 있다.

한편 의료관광 산업은 부가가치가 크고 고용 효과가 높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각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의료관광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두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까지 100만 명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1만 명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13년부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차후 의료통역사 자격증화 추진 및 고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졸 채용 앱' 터치 후끈

관련 공채시장 커지자 커리어·사람인 잇따라 출시

대졸 하반기 공채만큼 고졸자 취업 전쟁도 뜨겁다. 고졸 채용 시장이 커지고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채용 앱도 속속 나오는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출시된 사람인의 고졸 전용 취업 앱 '고졸채용 사람인'이 최근 구글플레이 비즈니스 카테고리 신규 인기 무료 앱 1위에 올랐다.

이 앱의 '채용정보' 코너는 지역 특성화고 학과별 등 이용자에게 맞는 12가지 카테고리를 추천해 효율적인 구직 탐색을 돕는다. 각종 취업 동영상과 연봉 정보를 담은 '자료통' 취업 콘텐츠도 유용하다. 날마다 신규 채용 소식을 전해는 푸시 알림 기능, 스크랩한 공고의 마감일 임박을 알리는 알람 기능도 제공한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다운으며 모바일 웹(highschool-m.saramin.co.kr)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커리어는 지난달 '커리어 고졸공채' 앱을 선보였다.

이 앱은 고졸 취업 준비생 맞춤 코너가 특징이다. '고졸취업뉴스'는 고졸 공채의 흐름과 최신 뉴스를 알리며 '고졸신공신화'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인물들을 소개한다. '고졸 공채 취업노트'는 대기업·공기업·금융권의 고졸 공채 예상 일정과 기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채용 동향, 합격자 수기 등의 유익한 정보도 앱으로 간편히 검색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 잡코리아, 인크루트에서도 자사 앱을 통해 고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물새는 자동차' 신고 최근 2년 무려 1300건

최근 2년간 차에 물이 새는 '누수' 신고가 1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 제작결함신고센터에 들어온 누수 신고는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1290건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가 780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GM 214건, 기아 187건, 르노삼성 16건, 쌍용 8건이며 수입차는 4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27건, 2012년 95건에서 올해 들어 968건으로 급증했다. /박선옥기자 zen@

천연 재생섬유로 만든 '히트필' 내복 15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제천을 강조한 히트필 내복을 선보이고 있다. 히트필 내복은 천연 재생 섬유인 '라이오셀'을 사용해 보온성을 높였다. 가격은 1만9800원. /연합뉴스

흔한 크림빵, 만들땐 내공 빵빵

김현정 기자의 투잡 체험기

제과 제빵 ③

제과 제빵 기능사반의 분위기는 직장인 취미반과 확연히 달랐다. 재료 준비에서부터 반죽 굽기까지 익숙한 손놀림으로 준프로와 같은 자세를 보였다.

자격증 대비 교재를 펴놓고 시험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따로 정리한 노트를 틈틈이 찾아보는 수강생도 눈에 띄었다. 반죽의 온도를 재기 위해 온도계는 필수 준비물이다.

필기시험과 함께 제과 24종, 제빵 24종의 만드는 방법을 모두 숙지해야 실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내내 실전과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이번 시간에 만든 메뉴는 크림빵과 다쿠아즈다.

크림빵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접한 고전적인 메뉴다. 반면 다쿠아즈는 최근 인지도를 높이며 인기를 끌고 있는 메뉴. 마카롱과 비슷한 식감으로 슈가파우더를 뿌려 달콤하지근한 맛이 인상적인 메뉴다.

기능사 시험을 보려면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능숙함이 필수다.

크림빵은 3인 1조로 실습을 했는데도 시간에 쫓기는 수강생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기능사 시험을 치를 때는 수험생 혼자 모든 과정을 익혀서 할당된 분량을 만들어내야 한다.

크림빵은 손으로 늘렸을 때 투명하게 늘어날 정도로 약간 진 반죽을 만든다. 1차 발효를 마치고 나면 반죽을 한 개 분량만큼 떼어내 공 모양으로 굴린 다음 비닐을 덮고 중간 발효를 거친다. 그 후 크림을 채워넣고 2차 발효를 한 다음 오븐에 굽는다.

제과제빵 수업에서 한 수강생이 반죽을 담은 짤주머니로 오븐팬을 채우고 있다. /김현정기자

다쿠아즈는 머랭을 만들 듯 거품을 낸 달걀 흰자에 설탕을 3차례로 나눠 넣어주며 골고루 섞는다. 이후 밀가루, 아몬드 분말 등 가루 재료와 잘 섞어준다.

옮은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은 뒤 다쿠아즈 모양으로 만들어진 틀에 맞게 짜주면 된다. 오븐에 넣기 전 슈가파우더를 충분히 뿌려줘야 달달한 제맛이 난다.

지금까지는 제과와 간단한 제빵 중심으로 수강했다. 제빵은 반죽이 적정 시점을 넘어 처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과는 달걀 거품을 내는 정도 등 반죽의 공기포집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식빵 만들기로 본격적인 제빵에 도전한다.

/h1kim1@

수원 KT 홈구장 옆 '분양홈런' 예감

송죽동 '아너스빌위즈' 견본 주택 첫날 수천 인파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에서 공급하는 '수원 아너스빌위즈'의 견본주택에 개장 첫날 2500명의 인파가 다녀갔다고 15일 밝혔다.

수원 아너스빌위즈는 지하 4층~지상 45층의 2개 동으로 전용면적 55~128㎡ 총 798가구로 구성됐다.

프로야구 신생팀인 KT 위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수원야구장(리모델링 예정)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만석공원, 수원화성 등이 인접해 조망권이 우수하다.

단지 내 입주민 시설로 피트니스·GX룸·실내 골프연습장·탁구연습실·독서실·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1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6일 일반 공급 1~2순위, 17일 일반 공급 3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계약은 28~30일에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62-7번지 수원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7년 상반기 예정이다.

문의: 031)242-3200 /김성현기자

신한은행 60초 광고 '훈훈'

'따뜻한 금융' 진정성 전달

신한은행은 '따뜻한 금융'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1분짜리 TV 광고를 제작해 지난 11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TV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따뜻한 금융이란 콘셉트를 전달한다. 이는 금융에 진심을 담아 고객을 위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려는 취지다.

특히 15초 분량인 기존 광고 방식에서 벗어나 60초 분량으로 제작한 점이 특징이다.

신한은행 측은 "짧은 시간에 전달하기 어려운 메시지 전달을 위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며 "다양한 고객들에게 따뜻한 금융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광고의 배경 음악은 신한은행의 직전 광고와 마찬가지로 고객과 직원,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서울 88 올림픽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를 희망찬 버전을 썼다. 신한은행 측은 "유명한 광고 모델이 나오지 않지만 자사의 다수 직원과 직원들의 자녀가 참여했으므로 의미가 더 크다"며 "광고 희망찬 영상과 자막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h.km1@

롤 '4차원 챔프' 징크스

콘텐츠 대폭 업그레이드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콘텐츠를 대규모 업그레이드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자사가 개발 및 배급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116번째 신규 챔피언 '징크스'의 등장이다. 징크스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야성 챔피언으로 여러 가지 독특한 무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캐릭터다. 징크스는 로켓과 지뢰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짧은 시간 동안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 챔피언은 다대다 전투에서 팀 공격을 맡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기 챔피언 '가렌'에는 새로운 그래픽 효과가 적용됐다. 음향 효과와 음성 대사도 늘어나 캐릭터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 밖에 개성을 뽐내고 싶은 이용자들을 위한 총 3종의 신규 와드 스킨이 추가됐다.

/장윤희기자 unique@

모바일TV 데이터 걱정 뚝

KT 진화된 '올레TV 모바일' 시청땐 주변 와이파이 자동감지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프로야구 중계를 보는 도중 궁금한 각종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을까.

프로야구 마니아들의 이런 바람을 한방에 충족시켜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KT미디어허브는 15일 서울 대림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그레이드된 모바일TV 서비스인 '올레TV 모바일'을 소개했다.

올레TV 모바일은 KBS·MBC·SBS 등 지상파를 포함한 64개 실시간 채널과 5만5000여 개의 VOD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바일 TV 콘텐츠 플랫폼이다. 다중망 접속 최적화 기술인 'ABC솔루션'을 적용해 4메가비피에스(Mbps)의 HD급 고화질 영상을 끊임없이 제공하면서도 데이터비용을 줄여준다. 이는 주변의 와이파이(무선 인터넷)를 자동으로 감지해 3G·LTE 등 유료 데이터 사용량은 최대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덕분이다.

사용 환경에 따라 최적의 화질을 구현해주는 '어댑티브 스트리밍(adaptive streaming)' 기술도 탑재해 무선 신호의 세기에 맞게 자동으로 화질을 조정해준다.

KT미디어허브가 15일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 프레스클럽에서 연 '모바일 TV 황금시대' 개막 행사에서 골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특히 '모바일 스마트 야구중계'를 터치하면 16일부터 진행되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다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다. 고화질 실시간 중계는 물론 올레TV 히트작인 '편파중계'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각종 기록 등도 손쉽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밖에 웹툰을 부산 애니메이션 형태로 변형한 '무빙툰', 과거 연기 드라마를 소개하는 '추억의 10분 내레이션 드라마',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 등 스포츠 영상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올레TV모바일은 모바일LTE익스프340 이상 요금제와 올레인터넷 올라잇, 올레TV올라잇 가입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주성 KT미디어허브 대표는 "특화된 콘텐츠와 스마트한 서비스, 혁신적인 기술을 토대로 3년 내 500만 가입자와 월 1억 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모바일 TV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국보기자 kmlee@metroseoul.co.kr

한국인 사용 스마트폰 41% 5인치 이상 화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40%가 5인치 이상의 대화면 기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플러리는 한국 시장의 스마트폰 화면 크기별 사용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가 5~6.9인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세계시장 평균인 7%와 견줘 무려 34%포인트나 많은 비율이다.

또 세계시장에서는 화면 크기가 3.5인치 미만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4%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되는 추산됐다.

제조사별로 집계한 한국 시장 스마트 기기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0%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LG전자(15%), 애플(14%), 팬택(10%) 순으로 나타났다. 이 4개 제조사 이외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박성훈기자

"깡통PC, 좀비PC의 온상" FBI도 경고

운영체제(OS) 등 주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 PC'가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좀비 PC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연방조사국(FBI)에서도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FBI는 최근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 구입의 심각한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FBI 발표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의 배후에는 범죄자, 해커, 전문 해커그룹, 심지어 세계화된 범죄 조직이 있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의 악성코드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된 생년월일이나 개인식별번호와 같은 신상 정보는 물론 e메일,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개인 자료를 수집해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한 깡통 PC가 결국 사용자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범죄 조직의 돈벌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PC 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깡통 PC는 급격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OS는 물론 그래픽·사운드카드 등 실행에 필요한 각종 드라이브들을 구매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깡통 PC가 인기를 얻는 것은 싼 가격 때문이다.

실제 PC 출하량을 보면 이런 추세가 두드러진다. 2004년 전체의 8%에 불과하던 깡통 PC의 비중이 2006년 14.9%, 2007년 24%로 처음 20%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에는 무려 30.4%를 기록하며 전체 PC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LG 등 대기업도 깡통PC 판매에 뛰어들며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FBI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만으로도 충분히 이와 같은 악성코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떴다, 네 방! 푸시 기능 톨톨한 부동산 앱 '다방'

터치만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다.

주인공은 스테이션3(www.dabangapp.com)에서 출시한 모바일 부동산 앱 '다방'이다. 이 앱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원하는 지역을 설정해놓으면 원하는 조건의 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석울 독립문역 주변 1km를 설정해놓으면 푸시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대할 방을 등록하는 방법도 간편하다. '방 올리기' 기능을 터치한 후 상세 조건을 입력하면 된다. 특히 부동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개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다방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구석구석

◆파주개성인삼축제
- 날짜: 10월 19~20일
- 장소: 경기 파주시 임진각 국민관광지

축제는 인삼 판매와 함께 파주 농산물을 브랜드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삼 캐기 체험, 인삼 경매, 인삼비빔밥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등 인삼과 관련된 행사가 준비된다. 축제 개막일인 19일에는 KBS1 전국노래자랑이 진행되며 파주시장기 씨름 한마당 축제·인삼 마당극·청소년 록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강경발효젓갈축제
- 날짜: 10월 16~20일
- 장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강경포구

축제에서는 젓갈 김장 및 젓갈 담그기 체험·아시아 젓갈 페스티벌·만선제 및 강경포구재현·젓갈 마당극·보부상 재현·근대 문화거리 강경 옛 모습 사진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슬로푸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젓갈 및 발효음식을 주제로 '제1회 아시아젓갈 국제포럼'이 열린다.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포구주막·옛 포구장터 등 재래시장 거리도 조성된다.

◆보은대추축제
- 날짜: 10월 18~27일
- 장소: 충북 보은 뱃들공원

축제는 '5000만 전 국민과 함께 즐기는 2013 보은대추축제'라는 슬로건으로 5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축제 기간 KBS1 전국노래자랑·7080 낭만 콘서트·뮤지컬 '아리랑 파티' 등이 진행된다. 농산물 판매장에서는 보은 대추를 비롯해 각종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용대리를 뒤덮은 황태 덕장은 신기한 볼거리다. 지난 축제때 용대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황태 덕 아래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설악단풍 다음코스는 '황태 바다'

18일부터 사흘간 인제 '용대리 황태축제' 열려
막걸리·암벽 체험에 황태강정·황태라면 이색 맛

단풍이 곱게 물든 설악산의 비경을 감상하며 전국 제일의 황태를 맛볼 수 있는 황태축제가 열린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강원 인제군 용대리에서 '황태와 자연의 조화로운 향연'을 주제로 열려지는 '진품 황태축제 제15회 용대리 황태축제'다. 황태의 본고장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명태의 참맛을 즐겨보자.

◆풍성한 프로그램…푸짐한 가을축제

이번 황태축제는 공연·경연·행사·문화·체험, 전시·이벤트·부대행사·인제군 특산물 장터 등 총 8개 분야 43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주민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광객 4인 가족 통나무 끌어당기기 대회, 씨름대회, 인제 '하늘내린쌀 가마 오래 들기', 인제 막걸리 빨리 마시기대회 등의 다양한 경연 행사를 마련했다. 축제장 앞에 있는 용대 매바위를 맨손으로 오르는 '아이언웨이' 암벽 체험과 각설이 공연, 국악다 공연은 다른 축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매력을 제공한다.

또 19일에는 용대3리 전망대 주차장부터 미시령 산림관리계소까지 미시령 신소길 걷기대회도 열려 몸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할 수 있다.

◆황태 맛의 모든 것 한 자리에

한국전쟁 이후 함경도 피난민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인제 황태는 날씨가 춥고 일교차가 큰 용대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황태 고유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으며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맛과 향이 뛰어나다.

축제에서는 이런 황태를 마음껏 맛보고 즐길 수 있다. 우선 하루에 3회씩 운영되는 황태 퓨전요리 체험장에서는 황태를 이용한 황태라면·황태 양념구이·황탯국·황태강정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또 가마솥 황탯국 시식회와 황태장터 역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이 밖에 황태요리 판매장, 토속음식점 등 황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황태홍보관이 운영되며 덕장 전시관에서는 황태 덕장을 감상할 수 있다.

◆곰취·풋고추·콩·오미자도 가득

축제의 주인공은 황태지만 황태·곰취·풋고추·콩·오미자 등 인제 5대 명품도 체험할 수 있다.

콩 빨리 옮기기, 초두부 빨리 먹기, 인제 고추 빨리 먹기, 곰취 쌈밥 먹기대회, 5대 명품 다트 등 5대 명품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또한 1일 3회 운영되는 시식 코너를 통해 5대 명품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도 맛볼 수 있다. 5대 명품에 대한 퀴즈를 맞히는 도전 골든벨에도 참여해볼 만하다.

/황재용 기자 hasu03@metroseoul.co.kr

- 날짜: 10월 18~20일(금~일요일)
- 장소: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3리 삼거리
- 문의: 황태축제위원회 033)462-4806

황태마을 투어 미니열차 연중 '칙칙폭폭'

내년 짚라인 등 상시 운영

지금까지 황태의 참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제를 찾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황태 축제에서만 맛보던 재미를 연중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제군이 황태투어 미니열차와 용대3리 황태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인제군 용대 황태 연휴 사업단은 용대리 황태덕장을 둘러보며 황태마을 체험 코스를 연결하는 미니 열차를 오는 11월 중으로 시범 운영한다.

인제군은 황태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억6000만원을 들여 동력차 1량, 객차 3량을 갖춘 미니 열차를 제작했다.

미니 열차는 황태 건조 시기인 4월까지는 황태홍보관~황태덕장 구간에서 운행되며, 5월부터 11월까지는 황태홍보관~백담사 입구~만해마을~미리내 캠프 구간까지 황태마을 체험 코스를 연결하게 된다.

미니 열차와 함께 준비되는 황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다. 체험은 당일·1박2일·2박3일 등으로 나뉘고, 황태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아이언웨이 암벽등반·황태덕장 감상 및 체험·황탯국 시식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황태마을에 위치한 매바위 100m 정상에서 용바위와 용대전망대로 이어지는 짚라인은 스릴 만점이다.

사업단의 관계자는 "미니 열차는 용대리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며 "관광열차 이용자에게 용대리 숙박·음식·판매장 할인권을 주는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예술 입은 음료 '보는 맛'

엔제리너스커피·카프리 맥주 등 국내외 작가와 패키지 협업 눈길

유통업계가 이색적인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긴 불황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엔제리너스커피는 패션 일러스트 거장인 스티나 페르손과 손을 잡았다.

지난해 스페인 유명 일러스트 작가 '에바 알마슨'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스티나 페르손만의 잔잔한 수채화가 엔제리너스커피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져 한층 로맨틱한 가을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업 결과물은 엔제리너스커피 매장 디스플레이, 바리스타 복장, 메뉴 보드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오비맥주의 카프리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 스티키몬스터랩이 참여한 '카프리 아트 콜라보레이션 한정판'을 선보였다.

카프리는 '카프리와 함께하는 도시 생활의 즐거움'을 주제로 병맥주 제품 라벨에 음악·공연·연주·파티 시티 라이프를 각각 표현해 재미를 더했다. 또한 스티키몬스터랩이 주최하는 피규어 론칭 파티와 조선호텔 나인 음악회에서 카프리 아트 한정판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에너지 음료 핫식스에 그라피티 아티스트 산타를 접목한 '핫식스 라이트'와 '쿠르즈 에너지'를 출시했다.

핫식스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신선하고 위트 있는 감각을 살린 그라피티 아트를 제품에 접목시켜 20~30대의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모습을 그렸다.

업계 관계자는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은 장르 간 협업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문화적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마케팅이 봇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zo@metroseoul.co.kr

국내 첫 아사이베리 발효유 출시

건국유업 '장엔미'

건국유업이 국내 최초 아사이베리 농후 발효유 '장엔미 아사이베리'를 선보였다.

아사이베리는 아마존 밀림에서만 자생하는 열매로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수치가 21배나 높고, 필수지방산인 비타민, 단백질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엔미 아사이베리는 아사이베리 과즙에 유산균, 장·피부·뼈 건강까지 생각한 4가지 프로바이오틱스 밸런스 프로그램이 적용된 프리미엄 농후 발효유다.

유산균 밸런스를 고려해 덴마크 한센사에서 특허받은 BB 12 유산균을 사용했고, 장 밸런스를 생각해 사과 약 3개 분량의 식이섬유 7000㎎을 담았다.

장엔미 아사이베리는 건국유업의 골드체인시스템을 통해 각 가정에 직접 배송된다. 문의 080-4567-003

/박지원기자

보은 한우축제·소싸움대회 '손짓'

18일부터 닷새간 열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보은 한우축제 및 전국 민속소싸움대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충북 보은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축제기간 중에는 한우고기 시식회, 관람객 장기자랑,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한우고기를 할인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가 상설로 열린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보은축협 앞 경기장에서 열리는 소싸움대회는 체급별 120두가 출전한다.

이와 함께 소싸움대회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송아지 8마리, 염소(600kg) 1마리, 농축산물 선물세트 300개(매일 60개)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서정훈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 마케팅팀장은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043-1542-2200

/황재용기자

김장용 절임배추 벌써 예약 판매

롯데마트·홈플러스 온·오프 매장서 내일 시작

일본 방사능 공포로 식탁 먹을거리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김장철 배추 절임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롯데마트는 17~31일 전 점포와 롯데마트몰에서 절임 배추 800t을 예약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해남과 강원 강릉에서 생산한 김장용 절임 배추(20kg)를 시세보다 20% 저렴한 3만2000원에 내놓는다. 김장 재료도 20% 할인해 절임 배추(6.5kg)와 양념(3.5kg) 세트는 3만7800원, 양념속(5.5kg)은 3만4000원이다. 상품은 다음달 14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 점포와 인터넷몰에서 절임 배추를 예약 판매한다.

해남산 배추를 국내산 천일염에 절였으며, 판매 가격은 10kg당 1만5000원이다. 다음달 12~23일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무료 배송한다.

김치 양념(4kg)도 함께 판매하며, 10만원 이상 예약 구매한 고객에게는 홈플러스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15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절임 배추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끝숫자 '2·3데이' 위스키·안주 할인

르네상스 서울 호텔 23층 스카이 라운지 '호라이즌'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바 클럽 호라이즌은 매일 2와 3으로 끝나는 날짜에 위스키 한 병과 안주를 특별가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호텔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숫자를 이용한 이벤트"라며 "특히 호라이즌이 23층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숫자 2와 3으로 끝나는 날 호라이즌은 시바스 리갈 12년산 한 병과 과일 또는 치즈 안주를 정상가에서 45% 할인된 23만원(세금·봉사료 포함)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후 8시부터 자정 12시까지는 라이브 재즈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2-2222-8639

/황재용기자

삼청동에 오설록 티하우스

설록이 오설록 티하우스 삼청동점'을 오픈했다.

오설록 티하우스 삼청동점은 제주 티뮤지엄, 인사동점 등에 이은 9호점으로 오설록만의 차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오픈 기념으로 오설록 그린컵 500개를 선착순 증정한다. 22일까지 아모레퍼시픽 멤버십 가입 후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그린티 롤케이크를 하루 30명씩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필드 퍼팅 돕는 보이스캐디

유컴테크놀러지가 필드용 퍼팅분석기 '보이스캐디 퍼팅'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스윙의 스피드를 측정해 예상 퍼팅 거리와 방향, 그린 빠르기를 알려주고, 실제 스윙 시 정확한 퍼팅을 도와 전체 타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자석으로 퍼터에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해 사용이 간편하다. 가격은 9만9000원. 문의 www.voicecaddie.com 1577-2862

11번가 '보안·호신용품 기획전' 2탄

오픈마켓 11번가는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호신용품을 판매하는 '세이프존 시즌2' 기획전을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전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활용이 가능한 '베세토티브이(CCTV) 슈어아이 IP 카메라'와 '삼성 스마트 도어록 SHS-1521', '현우세이퍼 호신용 스프레이', '벡타마 호신용 경보기'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추첨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과 사연을 올리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15만원 상당 CCTV, 20만원 상당 디지털 도어록,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7가지 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다음달 11일에 발표한다.

11번가 손학재 보안용품 담당 매니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각종 강력 범죄에 불안해하는 고객을 위해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고객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첨단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새로 나온 책

인문

자크 아탈리, 등대

자크 아탈리/청림출판

유럽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자크 아탈리가 인생 좌표로 삼은 위인 23명의 이야기를 남겼다.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상가부터 과학자·예술가·종교인·정치인까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그들의 뚜렷한 신념과 지혜를 전해준다.

나를 팔리드립니다

앨리 러셀 혹실드/이매진

미국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가 웨딩 플래너, 노인 돌보미 등 현대 자본주의에 사용할 서비스가 공동체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알려준다. 저자는 "부자들이 사생활을 아웃소싱하는 동안 그럴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생활은 사라지고 만다"고 지적한다.

사회

국가는 부유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제지키 미사타카/에이지21

세계적인 금융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저자가 돌연 사표를 내고 10년간 100개국을 돌면서 쓴 행복 보고서. 그는 "한 사회에서 개인이 자기실현을 통해 최고의 만족을 얻고 사회에도 공헌했을 때 비로소 사회개인주의가 실현되고 개인의 행복 역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영화

그 영화 같이 볼래요

이동진 외/씨네21북스

'박쥐' '수리도 사랑할까' 등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상영된 서른 편의 영화들과 그 영화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를 본 독자에겐 또 다른 의미와 생각을,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한 독자에겐 호기심과 특별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심리

식탁 위의 심리학

시부야 쇼조/사과나무

식탁 위에서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심리를 다뤘다. 저자는 "큰 목소리로 다른 식당을 칭찬하는 사람, 손님은 왕이라며 거세 부리는 사람, 블로그에 올린 음식 사진만 열심히 찍는 사람과는 밥을 먹지 마라"면서 "밥 먹을 땐 사람의 본성은 물론 생각까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스포츠

톱 플레이어 개인기 100

사이다 대츠로/삼호미디어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등 세계적인 축구선수들은 모두 팀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쓰는 전 세계 최강 플레이어 75인의 빛나는 개인기와 각 포지션별 선수 안내서가 책 속에 담겨있다.

자기계발

이제는 제대로 화내고 싶다

오가와 히토시/가넷연의재

'화'를 참는 것이 아닌 화 내는 것을 권장하는 책이다. 저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시작해 데카르트, 칸트를 거쳐 푸코와 들뢰즈에 이르는 수천년간의 탄탄한 철학 이론을 바탕으로 화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화가 가진 긍정의 힘과 에너지를 이해해 제대로 화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내 직장의 그녀를 탐색하다

[illegible]/[illegible]북스

어 제에는 직장에서 한 번쯤은 맞닥뜨렸을 법한 나쁜 여자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나쁜 여자들을 다양한 에피소드로 소개하며 여자들이 왜 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왜 나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를 분석하고 나쁜 여자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준다.

패션

미니스커트는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까

김경선/부키

현대 패션의 역사와 산업, 문화적 영향을 살펴본 만화책. 남성의 전유물이던 바지를 처음 입은 19세기 여성운동가 어밀리아 블루머부터 샤넬이 1926년 선보인 블랙 미니원피스를 거쳐 히피룩, 힙합 등 최근 트렌드까지 아우른다. 샤넬, 디오르 등 패션 거장의 삶도 생생한 그림과 함께 소개한다.

'추악한 괴물' 자본주의

불평등·빈부격차 등 미국의 현실 통해 성장 중심 이념의 문제점 고발

아메리카 개척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힘 없는 여러 집단의 희생과 파괴를 먹으며 성장했다. 인디언은 그들의 터전과 재산을 잃고 지금도 여전히 도시를 방황하고 있으며 흑인과 유색 인종은 최악의 노동 환경에서 일하며 슬럼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미국은 발전을 위해 자연과 환경, 인간성마저 철저히 파괴하며 그들만의 성을 단단히 쌓다.

지난 세기 세계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따라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본주의가 최상의 가치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미 희생과 고통을 통해 성장한 괴물로 변했다. 가장 잘나가던 미국은 현재 가장 불평등이 심한 국가이자 빈부격차가 큰 나라로 성장했다. 최고 수준의 빈곤율, 최고 격차의 소득 불평등,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최저 국가, 낮은 수준의 성불평등 지수, 최저 수준의 사회이동 비율이 그것을 반증한다.

파멸의 시대 저항의 시대

크리스 헤지스, 조 사코/씨앗을 뿌리는 사람

저자는 "우리 사회는 시민의 참여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곤 한다"며 "그러다 보니 시민은 자기가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힘이 없는 대중은 이용만 당할 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저항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2011년 9월 17일 저자가 그토록 바라며 예상했던 것처럼 뉴욕의 주코티공원에 월가 점령 운동의 불길이 피어올랐다. 자본주의가 지금껏 먹어온 희생과 파괴는 날카로운 칼이 돼 미국 자본주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책은 처절한 미국 자본주의와 대중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자본주의를 최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오늘날 미국의 대중이 처한 현실이 '최악'임을 고즈넉이 들려준다.

이미 잊은 듯하지만 우리의 기업 역시 지난날 국민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장했으며 기업은 점점 부자가 되는 반면 대중의 삶은 하루하루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의 참상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윤재용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책 속 풍경 — 19세기의 [illegible] 사람들

승객들이 창이 없이 뻥 뚫린 기차 뒷좌석에 작작 지어 앉아있다. 이들은 양옆으로 들이치는 비를 우산으로 막고 있지만 표정만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단해 보이지 않는다. 1859년 영국의 화가 찰스 로지터가 그린 '브라이튼으로 가는 3실링 6다임짜리 뒷좌석' 이다. 노동자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녀볼 수 있는 자가 타기, 발명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렬에 기차로 가려지지 했사했다. 당시 브라이튼은 대중 휴양지로 각광받는 곳 중 하나였다. 19세기 들면 하도 집을 비우고 여다른가 몰리 쉬러 가는 휴가는 상류층만의 특권이었는데, 이즈음부터 당일치기 기차 여행이 성행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이주은/애플북 /이지은기자

성공은 천천히…삶의 기쁨은 함께

화제의 책

마시멜로 세번째 이야기

호아킴 데 포사다/21세기북스

'마시멜로 이야기'가 6년 만에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다.

작가 [illegible] 엘런 [illegible]과 함께 쓴 포사다는 이번 책에서 성공 이면에 자리 잡은 인생의 가치와 삶의 속도에 주목한다.

삶의 안정기에 접어든 아서는 독자적인 사업을 꿈꾼다. 또 다시 조너선의 지원을 얻게 되고 사업도 승승장구한다. 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간다. 아서는 조너선을 찾아가고 또 다른 인물 클레멘타 비방코를 만나보라는 제안을 받는다.

아서는 이후 16주간에 걸쳐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원칙을 배우기 시작한다. 성공에 도취돼 미처 보지 못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은 아서는 일에만 매달리느라 잃어버린 인생의 균형감을 찾아간다. 정신없었던 삶의 속도를 늦추면서 함께 다우며 성공을 즐겨야 한다는 마시멜로 원칙을 실천해나간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나로 변화하기 위해 자제력과 남다른 생각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며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힘든 시간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유연해지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기자 [illegible]

영화 '공범' 단독주연

손예진

"감정연기 8할… 가장 힘들었던 작품"

배우 손예진(31)이 남성 배우들이 장악한 극장가에 여우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맞선다. 영화 '공범'(24일 개봉)은 연기 활동 13년 만에 처음 도전한 스릴러이자 2시간을 홀로 끌어가다시피 하는 작품이다. 절정의 연기력과 숨은 매력을 이 작품에 모두 담았다.

◆스릴러퀸에 도전하는 그녀

'공범'에서 그가 연기한 다은은 아빠(김갑수)의 넘치는 사랑으로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온 기자 지망생이다. 공소시효 15일 전 유괴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의 목소리를 영화에서 듣게 되고, 자신을 위해 평생 모든 것을 희생해온 아빠를 의심하면서 힘겨운 진실 추적을 시작한다.

그는 특유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물론 아빠를 범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며 폭발하는 감정 등 폭넓은 연기를 선보였다.

"스릴러가 처음이기도 했고,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작품이었어요. 보통 한 작품에 3~4개였던 감정신이 이 영화에는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다은이가 놓여있는 상황 자체가 잔인했던 거죠."

그는 촬영 전 연기를 상상하는 순간 막막하고 힘들었다. '내가 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싶어 겁부터 났다.

"사실 감정 연기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나와의 싸움은 고통의 연속이었죠. 다가가고 싶지도 않은 상황들을 표현해야 하는 순간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엄청난 고독감이 몰려왔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고통 속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정작 중요한 연기를 할 때 에너지를 놓칠까봐 일상에서는 인물에 빠져있지 않고 최대한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

아빠 유괴살인범으로 의심
상상하는 순간 겁부터 덜컥
13년동안 스캔들 없는 이유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이죠

여배우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원톱 주연을 맡는 것도 도전 욕구를 자극했다.

"다워 등 촬영할 때 이번 영화 출연을 결정했어요. '베테랑 감독, 많은 배우들과 서로 기대어 촬영했던 '타워'와 정반대로 가고 싶었죠. 마찬가지로 '오싹한 연애'를 촬영할 때 '타워'를 선택했어요. 그 영화 역시 신인 감독의 작품으로 후배를 끌어가야 하는 책임감이 있던 작품이었죠."

◆제 모습 늘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화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였던 그는 다시 한 번 많은 배우들과 공연하는 대작에 몸을 실었다. 조선판 해양 블록버스터 '해적'에서 여자 해적 여월 역을 맡아 촬영이 한창이다.

"어릴 때는 몸 쓰는 걸 안 좋아했어요. 감정 연기에 더 욕심을 냈었죠. 그런데 더 나이 들면 액션은 못 할 것 같더라고요. '킬 빌'과 같은 여주인공을 내세운 센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바람도 늘 있었죠. 변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더라도 제 모습이 늘 새로웠으면 해요."

그는 10년 이상 충무로 파워와 정상의 인기를 이어오는 몇 안 되는 여배우다. 카메라 이면에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다. 13년간 특별한 스캔들이나 루머가 없었던 것도 그중 하나다.

"연애를 많이 못 한 건 사실이에요. 연예인끼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마음도 그다지 없었고요. 공개 연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래요. 일할 때는 완벽하고 싶거든요. 내 개인적인 부분이 알려지면 작품에서 저를 바라볼 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행동도 조심하고 사고 안 치려고 노력하죠. 13년간 어렵게 쌓아온 이미지인데 한순간에 날아가면 억울하잖아요."

/유순호기자 gusno@metroseoul.co.kr

사진/백동휘(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은지

음악적 성장·감성 보여줄게요

아이유 내달 두번째 단독 콘서트…'분홍신' 8일째 1위

정규 3집 '모던 타임즈' 발매와 동시에 전 차트를 석권한 아이유가 1년여 만에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연다.

아이유는 다음달 23~24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과 12월 1일 부산 KBS홀에서 단독 콘서트 '모던 타임즈'를 개최하고 음악적 성장과 다채로운 매력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이번 콘서트는 동명의 타이틀인 정규 3집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공연으로 아이돌과 뮤지션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음악적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스윙·재즈·보사노바·포크 등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장르 음악들을 선보여 대중과 평단의 극찬을 이끌어냈던 정규 3집의 신곡들은 물론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들을 새로운 스타일로 편곡해 들려준다.

아이유는 지난해 6월 데뷔 4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 '리얼 판타지'를 열어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공연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해 9월에는 팬들의 열광적인 요청으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하며 공연계에서 인기를 확인했다.

한편 아이유는 3집의 타이틀곡 '분홍신'으로 8일째 음원차트 1위를 지키고 있다. 7일 앨범 공개와 동시에 음원차트 올킬과 수록곡 전체가 상위권에 오르는 줄 세우기를 기록했다. 3집 수록곡은 '멜론'을 비롯해 엠넷·올레·벅스·네이버 뮤직·다음 뮤직·소리바다 등 모든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ci@metroseoul.co.kr

박효신 데이브 코즈와 13년만에 앙상블

가수 박효신(사진 왼쪽)이 세계적인 재즈 색소포니스트 데이브 코즈(오른쪽)와 13년 만에 조우한다.

박효신은 29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리는 데이브 코즈 내한 공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나선다. 데이브 코즈는 최근 발매한 앨범 '서머 혼즈'로 빌보드 재즈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1999년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앨범 '더 댄스' 홍보를 위해 방한했고 당시 데뷔한 19세의 신인 가수 박효신과 '이소라의 프러포즈'에서 공연한 바 있다.

이번에 내한 공연을 하게 된 코즈는 당시 인연을 맺은 박효신에게 다시 무대에 서줄 것을 요청했고, 박효신은 흔쾌히 요청에 응했다.

박효신은 현재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베스의 일대기에 죽음의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한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연을 맡아 열연 중이다.

/유순호기자

박지윤 강렬한 섹시미

프로듀서 프라이머리와 작업한 '미스터리' 21일 공개

섹시 가수로 돌아오는 박지윤(사진)이 대세 프로듀서 프라이머리의 손잡았다.

소속사 미스틱89는 15일 공식 페이스북에 새 싱글 '미스터'의 2차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등 부분이 넓게 파인 블랙 드레스 차림의 1차 티저보다 강렬해진 사진으로 조각으로 이어져 있는 화이트 드레스가 눈길을 끈다. 박지윤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눈빛으로 카리스마를 풍긴다.

1년 동안 총 네 차례의 싱글을 분기마다 발표할 예정인 박지윤은 21일 선보일 첫 싱글에서 프라이머리가 쓴 타이틀곡 '미스터리'로 활동한다. 프라이머리는 유명 힙합 프로듀서로 여러 히트곡을 배출했고 최근에는 MBC '무한도전-무도나이트'에서 박명수와 손을 잡고 신곡을 준비하고 있어 화제를 모은다.

미스틱89는 "프라이머리 외에 윤종신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국내 최고의 프로듀서들이 참여해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AOA 네 번째 싱글 '레드 모션' 재킷. 지민·초아·유나·혜정·찬미·설현·민아(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AOA 파격 안무로 연일 화제

7인조 걸그룹 AOA가 파격 섹시 안무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멤버 개인 활동과 유닛 활동을 끝내고 1년 만에 뭉친 이들은 핫팬츠의 섹시 의상을 자려입고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남심을 흔들고 있다. 15일 음원 출시에 앞서 발표한 '흔들려' 뮤직비디오와 이 곡의 컴백 무대는 공개와 동시에 온라인에서 화제를 불러모았다.

각종 리액션 영상과 댄스 커버 영상이 줄이어 업로드되는 등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소파를 활용한 '소파춤' 포인트 안무 '암술춤'과 '스트레칭춤' 등 섹시 퍼포먼스로 총망라한 무대는 청순 이미지에서 180도 변신한 AOA의 반전 매력을 담아냈다. /유순호기자

데뷔 10돌 '브아솔' 연말까지 매달 신곡 발표

최강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정엽·나얼·영준·성훈)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들은 10년 동안 함께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지난 활동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매달 신곡을 발표한다. 내년 1월에는 앨범을 출시하며 12월과 내년 2월 단독 콘서트도 개최한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은 15일 1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서막을 여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오랜 파트너인 송원영 영상감독이 제작한 이번 티저 영상은 단단한 얼음이 녹아내리며 10주년 기념 엠블럼이 나타나는 구성으로 전개된다.

얼음 속에 감춰져 있던 엠블럼이 서서히 등장하여 강한 빛을 발하는 모습에서 섬세한 영상미를 느낄 수 있다. 추반부의 피어오르는 불길과 금속의 단단함에서 10년 역사의 강렬함이 전해진다. 나얼 영상 속 엠블럼의 티저 포스터는 나얼이 디자인했다.

매주 |금| 저녁7시 tvN 방송 / 10월 11일 첫 방송

고용노동부

조용필·이효리…올해 최고 가수는 누구?

'뮤직 어워드' 내달 개최 앞둔 후보명단 공개

다양한 세대의 가수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올해 가요계 최고의 스타를 가린다.

국내 대표 온라인 음원 사이트 멜론은 다음달 14일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개최를 앞두고 톱10을 뽑기 위한 후보 가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30명의 후보는 다운로드 횟수(60%)와 스트리밍 횟수(40%)를 기준으로 뽑혔으며, 28일까지 네티즌 투표를 거쳐 이들 중 톱 10이 가려진다.

조용필·이효리 등 베테랑 가수부터 막강한 저력을 보인 엑소 등 신예 뮤지션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지드래곤·비스트·인피니트·소녀시대·씨스타·2NE1 등 전통의 강자인 아이돌들도 치열한 대결을 벌인다.

이들 외에 다이나믹듀오·긱스·버벌진트 등 힙합 뮤지션과 로이킴·김예림·악동뮤지션 등 오디션 출신 스타들의 자존심 대결도 관심을 모은다.

두 차례 온라인 투표를 거쳐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아티스트상·베스트송·앨범상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은 MBC뮤직과 다음·멜론·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유순호기자 suno@

조용필 이효리 지드래곤

"발목 묶고 연기 부상 달고 살아"

김선아 '더 파이브'로 첫 스릴러 도전

데뷔 첫 스릴러에 도전한 배우 김선아가 온몸을 던지는 열연을 펼쳤다.

영화 '더 파이브'에서 하반신이 마비된 인물 고은아를 연기한 그는 15일 압구정CGV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휠체어 타는 것과 그걸 보는 것은 많이 달랐다.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힘든 촬영 과정을 돌아봤다.

3개월간 휠체어에서 생활한 그는 넘어졌을 때에는 하반신이 마비된 설정이라 기어 다녀야 했다. 허리 밑으로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을 묶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부상을 달고 살았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도 있다.

김선아는 "마음속 깊이 남을 작품이다. 하반신 마비 인물을 연기하면서 몸이 온전치 못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다"며 "움직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연기를 떠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다"고 말했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영화화한 '더 파이브'는 악마 같은 살인마에게 짓밟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은아의 복수를 다룬다.

김선아는 이번 역할을 위해 얼굴에 상처를 내고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메이크업도 최소화했다. 로맨틱 코미디의 아이콘인 그는 과거와 180도 다른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김선아는 "거친 느낌의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파마도 대여섯 번 했더니 머리카락이 많이 탔다.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 파이브'는 다음달 14일 개봉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영화 '더 파이브'의 주연을 맡은 김선아가 15일 압구정CGV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늘씬한 몸매가 돋보이는 원피스 차림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star bag

이보영 류수영과 한지붕

배우 강소라가 이보영·이지아·류수영·유인영 등이 소속된 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윌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더 안정감 있는 연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욱 전문적·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강소라의 전 소속사인 컴퍼니 다정다감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요광장' DJ 하차 결정

가수 김범수가 27일 방송을 끝으로 KBS 2FM '김범수의 가요광장'에서 하차한다.

지난해 9월 '가요광장'의 DJ로 발탁된 그는 다음달 시작할 소극장 공연 연습과 정규 8집 작업 때문에 하차를 결정했다. '2013 김범수 소극장 콘서트'는 다음달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엿새간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다. 김범수의 후임 DJ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소니 음향기기 모델 발탁

가수 김예림과 힙합 듀오 리쌍이 소니의 이어폰·헤드폰 음향기기 브랜드 MDR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리쌍은 대중성과 음악성을 고루 갖춘 뮤지션이라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했고, 김예림은 리쌍과 음악적으로 잘 어울리는 여성 아티스트로 모델에 발탁됐다. 리쌍과 김예림은 13일 광고 촬영에 참여해 기존 이미지와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How long did the movie last? 저녁 외출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영화는 얼마나 오래 상영했나요?
극장 안내원이 우리를 자리까지 안내해주었어요.
연극이 끝난 후에 우리는 모두 뭘 좀 먹고 싶어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택시를 잡는 데 힘들었어요.
저는 어두워진 후에 외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확인하세요.

How long did the movie last?
The usher showed us to our seats
After the play was over we all wanted to get something to eat.
There was a big crowd and we had difficulty getting a taxi
I'm not accustomed to going out after dark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대화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How did you find your seats?
B The usher showed us to 우리의 자리들

정답 our seats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How long did the [movie / baseball game] last?

2 [The usher / The waiter] showed us to [our seats / our table]

현재진행시제 부정문

▶ be동사 뒤, v-ing 앞에 not을 붙이며 ~하고 있지 않다를 의미한다

I	am	not	v-ing
you/we/they	are		
he/she/it	is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파악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m not watching TV 저는 지금 TV를 보고 있지 않아요.
2 You're not listening to me 너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있구나
3 It's not raining now 지금은 비가 오지 않아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Mr. Kensington has already filed the expense report for _______ recent trip to Hong Kong

(A) he (B) his
(C) him (D) himself

02 The mail office will soon be able to send out packages more _______ because of the updated processing procedures

(A) quick (B) quicker
(C) quickest (D) quickly

01 [illegible]
해설 명사구 recent trip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illegible]
어휘 file [illegible]
정답 (B) his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quickly [illegible]
어휘 package [illegible] updated [illegible] processing [illegible] procedure [illegible]
정답 (D) quickl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Do 의문문

Do you think ~ Do you prefer ~ 의문문 [illegible] 그에 대한 이유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Q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own a car? [illegible]

A Yes, it is necessary to own a car because my city is really big.
[illegible]

No, it isn't necessary to own a car because cars cost a lot of money.
[illegible]

Q Do you prefer to spend your free time alone or spend it with other people?
[illegible]

A I prefer to spend my free time alone because I can relax.
[illegible]

I prefer to spend my free time with other people because I can have more fun with them
[illegible]

캣우먼

어쩌다 보니 왕언니… 왕따 당하는 느낌
참다참다 폭발하면 역효과 바로 풀어야

Q Hey 캣우먼!
입사 12년차 미혼 직장인입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여자 직원 중 가장 나이가 많아요. '왕언니'라는 소리가 참 듣기 싫고 부담스럽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바로 '꼰대'가 되는 거지요. 저도 꼰대 소리 안 듣고 싶어서 후배들을 휘어잡으려고도 안 하고 실수해도 관대하게 대합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가끔 세게 타이르거나 젊은 애들이 은근히 나를 따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위축되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제 뒷담화하러 가나 싶기도 하고요. 비굴한 제가 싫습니다. /가을타기

A Hey 가을타기!
나이 든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감을 의미하며 조직에서 경력이 직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그냥 마땅한 이유 없어도 쉽게 미움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왕년에 그 수군수군하는 젊은 애들이었지요. 어쨌든 참는 것이 가장 안 좋아요. 보통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판증. 가끔 폭발했을 때의 내가 후배들에게 더 쓸데없이 드세고 날카로워 보일 가능성이 있지요. 일종의 반동 작용이라고나 할까. 평소에는 사람 좋게 굴다가 한 번 터져서 '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라고 막연한 불안감을 주느니 차라리 그때그때 담아두지 말고 세세하고 조잔(?)하게 할 말은 해주는 편이 서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해져서 편해지지요. 단지 내가 좀 세게 말했다거나 주의를 준 후에는 반드시 '그 건은 잘 해결되었어?' 식으로 자상하게 관심을 보이고 일련의 행동이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면 좋을 듯합니다. 뒤끝이 나쁘지 않으면 사람은 타인에 대해 그다지 악감정을 가지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 마음 씀씀이만큼은 그 잘나라도 진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싫어하면 그들도 결국 다를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위선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고요. /캣우먼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1
			2	9		5		
	2	4	1				3	7
	9		7					
1								3
					5		2	
5	6				2	4	9	
		7		6	9			
9			8					

	8							
4							7	3
			7	3			2	
	5	7			1			6
1				6				8
2			4			3	1	
	6			8	9			
3	4							1
							5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보누스
펀사 스도쿠 플래티넘 (이아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수입은 적지 않은데 늘 쪼들려 냉장고·옷장부터 정리할 필요

수입은 여자 71년 9월 17일 음력/남자 71년 2월 5일 음력

Q 남편 수입이 적지 않은 편인데 지출이 많이 늘 빈곤한 느낌입니다. 결혼 전에도 사정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절약하며 사는데도 이젠 지겨 불만이 가득합니다. 언제쯤 잘살 수 있을까요?

A 정관격(正官格), 정인격(正印格)이라 순수하며 느슨해 주변을 정리하는 데 소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 안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부터 정리정돈하세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구매한 물건은 없는지 알아보고, 옷장을 열어 충동적으로 구매해 안 입는 옷을 분리하십시오. 집 안 정리하는 일이 엄두가 안 난다면 지루쯤 도우미에 손을 빌려도 될 것입니다. 외식비를 줄이면 되니까요. 일상에서 작은 것 몇 가지만이라도 정리한다면 재물은 늘어나고 정신적인 피곤함과 불만은 서서히 뒬러갈 것입니다.

26세 되도록 연애 한번도 못해 내년 9월 되면 만남의 운 트여

궁금 있지 말자 여자 88년 4월 20일 음력 오전 5시50분

Q 태어나서 여태껏 연애 한 번 못 해봤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남자를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결혼에 대한 조바심이 생깁니다. 전공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지금 학생이라 내년쯤에는 취업을 해야 할 텐데 남자가 어디서 나타날지 알고 싶어요.

A 현 운량이와 같이 신체하고 강직해 상대들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독보(獨步)하므로 자칫 대인관계에서 진실한 유대 감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중매보다는 연애 결혼을 하게 되며 내년 9월부터 만남의 운이 열립니다. 관귀학관(官貴學館)으로 지혜가 밝고 예의가 있어 입신출세하는 길상으로 고위직에 오를 수 있지만 자기만 옳다는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부부궁은 원만치 못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성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공직이나 권력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전에 꼭 궁합을 보세요. 월말에 심해살로 교통사고가 염려되니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6일 (음 9월 12일) 김하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일침거이 상황을 어렵게 한다. **60년생** 주머니 사정 빠가져 7분 내려. **72년생** 술자리에서 한 약속 패군역 후회따군. **84년생** 변수 많으니 낙관은 금물.

소: **49년생** 대접받고 싶다면 먼은 닫아라. **61년생** 덤빗이 남기는 제안 받게 된다. **73년생** 상시 마음 맞추는 데 신경 써라. **85년생** 시행착오 있지만 희망이 자란다.

호랑이: **50년생** 과거에 묶이면 현실 적응 못 한다. **62년생**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 **74년생** 오래 공들인 일 드디어 결과 나타난다. **86년생**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할 것.

토끼: **51년생** 이익이 지나친 투자는 쳐다보지 마라. **63년생** 보석 같은 귀인 만난다. **75년생** 직장인은 중책 맡겨져 어깨 무겁다. **87년생** 긴절히면 없던 길도 생긴다.

용: **52년생** 마음이 위서면 손해 보게 된다. **64년생** 동료의 이유 외면하지 마라. **76년생** 감한 승부욕 때문에 잃는 게 더 많다. **88년생** 어려울수록 이유를 보여줘라.

뱀: **53년생** 돈에 흔들리면 망신 자초. **65년생** 꼼수 부리면 탈이 커진다. **77년생** 이유나 변명은 길면 길수록 손해. **89년생** 적당한 긴장감은 사랑을 더 깊게 한다.

말: **42년생** 장담한 일은 빛나간다. **54년생** 내키지 않는 모임은 가지 마라. **66년생** 제안이나 발표를 하면 박수가 쏟아진다. **78년생** 꿈이 현실화되어 휘파람이 절로.

양: **43년생** 물진 안 좋으니 과격한 움직임 삼가라. **55년생** 절박한 순간 귀인 나타난다. **67년생** 꿈은 멀리하고 현실 직시하라. **79년생** 젊음의 낭만 마음껏 누린다.

원숭이: **44년생** 위기 상황이 반전된다. **56년생** 친구를 접는 이야기는 멀리 전할수록 이익. **68년생** 흡족한 성과에 자리잡힌다. **80년생** 피할 수 없는 제안은 수락하라.

닭: **45년생** 지나 도둑으로 고인 딸게 된다. **57년생** 최선 다했으면 기적도 기대해보지. **69년생** 문서 업무 시비 생긴다. **81년생** 나설 길 아니면 모아둔체도 삼아라.

개: **46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하라. **58년생** 경사가 이어져 웃음 지속된다. **70년생** 나를 게 없는 자리는 사양하지 마라. **82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돼지: **47년생** 짐안일은 지켜보는 게 이롭다. **59년생** 대세 따를하는 고집 부리지 마라. **71년생** 귀가 즐거운 칭찬이 쏟아진다. **83년생** 주변의 충고는 적극 받아들여라.

류현진 '괴물본색'…역시 위기에 강했다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15일(현지시간) 홈구장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 선발투수로 나와 1회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향해 공을 던지고 있다. /USA 투데이 스포츠 연합뉴스

ML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 무실점투…팀 반격의 1승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6·LA 다저스)이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가운데 처음으로 데뷔 첫해 14승과 포스트시즌(PS) 선발승을 거두며 새 역사를 썼다.

류현진이 15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3차전에서 거둔 승리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우선 지난 7일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디비전시리즈 3차전 부진을 말끔히 씻어냈다.

정규리그에서 14승8패, 평균자책점 3.00의 빼어난 성적을 거둔 류현진은 당시 3이닝 4실점하며 조기 강판됐다.

그러나 류현진은 위기에 강했다. 이날 NLCS 3차전에서 완벽한 피칭을 뽐내며 '큰 경기에는 안 먹힐 수 있다'는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경험 많은 타자들이 즐비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타선을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 그야말로 '완벽투'였다.

시즌 내내 자신을 괴롭힌 '초반 징크스'도 완전히 털어냈고 몇 차례 시속 95마일(약 153km)의 강속구를 뿌리며 스탠딩 삼진도 두 번 기록했다.

이처럼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PS 첫 승은 오히려 팀의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자 역할을 했다. 덕분에 이날 경기로 돈 매팅리 감독의 확실한 신임을 얻게 됐다.

또 류현진의 상대 투수가 올 시즌 내셔널리그 다승왕(19승)에 빛나는 애덤 웨인라이트였다는 점에서 이날 승리는 더욱 빛이 난다. 한마디로 '슈퍼루키'가 '슈퍼에이스'를 제압한 것이다. 웨인라이트도 리그 정상급 투수답게 7회까지 5피안타 2실점하며 호투했지만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은 넘어서긴 역부족이었다.

류현진은 5회 맞은 무사 1·2루 위기를 침착하게 넘긴 반면, 웨인라이트는 4회말 선두 타자였던 마크 엘리스에게 수비 실책성 2루타를 허용하자 흔들리며 연타를 얻어맞았다.

다저스가 남은 챔피언십시리즈에서 승승장구해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한다면 류현진의 최초 기록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성훈기자 yyw@metroseoul.co.kr

류현진 NLCS 세인트루이스전 투구내용

해외언론 "RYU, 경기 지배…투구 어메이징"

벼랑 끝에 몰린 LA 다저스를 구원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에 대한 해외 언론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LA타임스는 "류현진이 3연패 위기에 몰렸던 다저스를 구했다"며 "단순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듯 혼신을 다해 투구했다. 7이닝 동안 카디널스를 무실점으로 묶었다"고 류현진을 높이 평가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도 "류현진이 NLCS 3차전 애덤 웨인라이트 앞에서 좋은 피칭을 했다"며 "류현진은 세인트루이스 타선에 좋은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3차전을 지배했다"고 극찬했다.

국내 팬들도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 투구를 선보이며 승리를 이끈 류현진이 자랑스럽다" "타자를 압도했던 오늘 투구는 놀라웠다. 역시 한국 최고의 투수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성훈기자

김진욱 4차전 vs 김기태 5차전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김진욱 두산 베어스 감독, 김기태 LG 트윈스 감독(왼쪽부터)이 예상 게임 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홍성흔 "Again 2000" 이병규 "기억 안나"

LG·두산 오늘 PO 첫판

13년 만의 더그아웃 시리즈를 하루 앞두고 양팀 대표 선수 이병규(39·LG 트윈스)와 홍성흔(36·두산 베어스)이 '뼈 있는' 입담 대결을 벌였다.

잠실야구장을 함께 쓰는 LG와 두산은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15일 잠실야구장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두 팀은 2000년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고, 두산이 LG를 4승2패로 꺾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바 있다. 당시 경기를 경험했던 이병규와 홍성흔은 팀의 고참으로서 한치 양보 없는 대결을 예고했다.

이병규는 "지나간 것을 빨리 잊어서 2000년은 기억나지 않는다. 16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겠다"고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00년 승리를 맛봤던 홍성흔은 "2000년 우리는 막강 화력을 자랑했다. 지금은 팀 컬러가 다르다. 기동력이 충분히 있고 거포는 없지만 중장거리 타자가 있다. 2000년 기억을 떠올리려 하고 있다. 좋은 기억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이에 대응했다.

이병규와 홍성흔의 신경전은 조금의 양보도 없었다. 부드럽게 포장하면서도 날 선 말로 상대를 공격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손흥민 결승골…홍명보호 3G 만에 승리

말리에 3-1 역전승

홍명보호가 복병 말리를 상대로 귀중한 1승을 따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말리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1분 만에 손흥민(레버쿠젠)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3-1로 승리했다. 크로아티아전에 이어 12일 브라질전에서도 패해 팀 분위기가 침체돼 있던 한국은 지난달 6일 아이티전 이후 3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다.

한국 대표팀과 처음 맞붙어 생소한 말리는 한국보다 국제축구연맹(FIFA)랭킹이 20계단이나 높은 38위로 아프리카의 복병한 팀이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1분에 결승골을 터뜨리며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부재에 대한 고민을 해소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이청용(볼턴)은 역전골과 추가골을 도우며 특급 테크니션의 기량을 과시했다.

대표팀은 이근호(상주)를 최전방에 세우는 4-2-3-1 전형을 구사하며 손흥민과 이청용을 좌우 공격수로 배치했고,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이근호를 지원했다.

한국은 전반 내내 주도권을 잡았지만 말리의 역습에 당해 전반 28분 프리킥에서 모디보 마이가(웨스트햄)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한국은 전반 34분 상대의 핸들링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구자철이 성공해 동점을 만들었지만 공격라인이 제 기량을 펼치지는 못했다.

후반 들어 한국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됐다. 이청용이 2대1 패스를 통해 페널티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연결했고 손흥민이 가슴 트래핑 후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말리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김보경(카디프시티)의 역전골은 알세워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유순호기자 suno@

15일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말리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오른쪽)이 후반 시작과 함께 역전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제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2011-서울강남-0163
1566-7979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거절된적 있으십니까?
100만원 누구나! 무상담대출
저도 되네요!
완전 쉽던데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역시! Rush Cash 1566-7979